



투명한 기업 경영으로 경쟁력 향상

삼프레 (주)동우, '2009 대한민국 윤리경영 종합대상' 수상

클리 편집부

최근 기업의 윤리경영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윤리경영은 이제 선택이 아닌 생존을 위한 필수 전략이 됐다.

윤리경영(moral management)이란 경영 활동의 규범적 기준을 사회의 윤리적 가치체계에 두는 경영 방식을 뜻하는데, 기업의 이윤 창출 외에 기업과 연관된 모든 지역사회, 임직원, 고객, 나아가 국가에 더욱 적극적으로 기여하기 위한 모든 경영 활동

을 지칭한다.

실제 윤리경영을 실천하는 기업의 경우 단기적 성과는 물론 장기적 성과와 아울러 기업 경쟁력이 높아지고 있다. 이제 윤리경영은 국제 상거래의 필수 요소가 됐으며 국가 및 기업의 신용평가 잣대가 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윤리경영은 선택이 아닌 필수 요건이 되고 있는 것이다.

최근 들어 국내 기업들이 윤리경영에 많



은 노력을 기울이면서 각종 문화 행사 및 봉사활동 등으로 영역을 넓히고, 투명경영과 부정부패 척결에도 나서고 있다.

이는 우리 닭고기 업계에도 영향을 미쳐 규모가 큰 계열업체를 선두로 윤리경영 실천을 통해 우수한 경쟁력을 확보해 탁월한 경영성과를 창출하고 대내외 신뢰도 향상에 힘쓰고 있다. 그 중심에 (주)동우도 함께 한다.

‘대한민국 윤리경영 대상’ 종합대상 수상

(주)동우(회장 김동수)는 지난 10월 8일 밀레니엄 서울힐튼호텔에서 열린 ‘2009 대한민국 윤리경영대상’ 시상식에서 종합대상을 수상했다.

‘2009 대한민국 윤리경영대상’은 기업들의 윤리경영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한경비즈니스가 제정한 것으로 ‘건전한 기업, 부강한 나라’를 모토로 국내 기업들의 윤리경영 우수 사례를 발굴해 널리 알림으로써 새로운 국제 경쟁력을 키우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지난해에 이어 2회째를 맞이한 올해 윤리경영 대상은 지난 9월 30일까지 기업들의 신청서를 받아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대상 기업을 선정했다.

(주)동우는 이 심사서에서 윤리경영을 바탕으로 한 투명한 기업문화와 정도경영을 실천하는 부분을 높게 평가받았으며, 나아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공헌에 일익을 담당했기에 이 상을 수상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김동수 회장은 (주)동우 이외에도 군산도시가스, (주)나농 등 계열 기업을 경영하면서 투명 경

영을 위해 소유와 경영을 철저히 분리했다. 이로써 전문 경영인과 이사회 간 견제와 균형이 조화를 이루는 선진형 기업지배구조를 실천해 왔다는 게 관계자의 말이다.

(주)동우 관계자는 “2006년 동우가 코스닥에 상장하면서 윤리경영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며 윤리적 사고와 행동의 체질화를 추진했다”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기 위해 동우, 군산도시가스, 나농 등 전 임직원의 참여를 바탕으로 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리경영의 발자취

(주)동우는 투명한 기업 경영 및 온 국민이 기업 경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2006년 코스닥에 상장해 기업 가치를 높이고 있다. 2002년도에는 성실납세를 인정받아 국무총리상을, 2005년 중소기업 경영공로를 인정받아 국무총리상을 수상한 바 있다.

그리고 2006년부터 임직원의 윤리 의식, 투명한 이사회 역할 이행 등을 통해 투명하게 기업을 경영하고 있다.

(주)동우는 정기적인 노사협의회를 통한 사 측의 경영 현황과 시장 흐름, 장·단기 투자 계획을 노 측에 설명했다. 또 노측은 애로사항 및 직원 복지에 대한 협의를 꾸준히 해 왔다.

그 결과 1993년 창사 이후 현재까지 단 한 번의 노사분규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동우 관계자는 말했다. 2007년에는 노동부로부터 노사 문화 우수 기업으로 인증 받는 등 노사 안정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우수 직원 선진지 견학, 야유회, 직원 클



(주)동우에서 펼친
여러가지 윤리경영의 발자취

- ① 임직원 아우회
- ④ 지역사회 장학금 지급
- ⑦ 노사문화 우수기업 인증

- ② 지역사회 나눔 활동 지원
- ⑤ 일자리 창출 및 인재육성
- ⑧ 직원 복지시설 개선

- ③ 우수 브랜드 인증
- ⑥ 지역사회 나눔 활동 지원

업 활동 지원 등)을 전개하고 있다.
 이 밖에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지역 복지단체에 기부 활동을 지속적으로 해 오고 있으며, 지역 및 관내 행사(군산시 새만금 마라톤 대회, 서수면민 체육대회, 군산 시민의 날 행사, 1사1천 가꾸기 등)에 직접 참여해 지역민과의 밀착 경영을 하고 있다.
 (주)동우 정창영 대표이사는 “50만 국제 관광 기업도시 건설에 이바지하고 매년 현장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훈련하고 있다”며 “지역 대학의 경쟁력 확보, 우수 인재 육성 사업에도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제품 개발로 식문화 발전 및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라는 철학을 가지고 소비자와 함께 닭고기 산업을 발전시킬 것이며, 그에 맞는 선구자적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